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중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제4회 컴세미나(4th COME Seminar) / 회교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자

.....

컴세미나, 회교권 목회자 37명 초청

9월 20일(수) ~ 28일(월),

실제적인 목회현장 탐방 및 한국의 현실 이해의 기회

교회는 오는 9월 20일(수) ~ 28일(목)까지 8박 9일간 제4회 충현해외목회자 교육세미나(Choonghyun Overseas Ministers Education Seminar)를 개최한다. 일명 COME 세미나로 불리는 이 세미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온 세계의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모습을 보여주며 부흥하게 된 원인과 방법을,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9월 우리 교회 설립을 기념하며 열리게 된 것이다.

금년에는 회교권 중에서 이집트에서 이준교 선교사의 27명, 수단에서는 김영대 선교사의 3명, 터키에서는 김원호 선교사의 4명 총 37여명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갖게 된다.

초청대상자는 ① 현지 교회 목회자로서 충현교회의 선교사업에 협력할 수 있는 사람, ② 현지 교회, 교단, 교계 및 종교 행정분야에 영향력 있는 사람, ③ 충현교회와 계속적으로 목회 교류가 가능한 사람 등으로 이집트 목회자는 이준교 선교사가, 수단 목회자는 김영대 선교

사가, 터키 목회자는 이원호 선교사가 초청대상자를 추천하였다.

지난 90년에 동구권 7개국 목회자 27명이 참가함으로써 처음 열린 세미나는 91년에는 동남아시아 지역 중국어권 목회자를 초청하여 실시했고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 목회자 31명을 초청하여 실시했다. 금년에 초청된 목회자중에는 이집트의 전 중경교단장이 5명, 현 교단장, 교단총무, 신학교 교수등이 포함됐다. 지난해의 인도네시아 목회자 초청시에도 그랬듯이 그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하므로 세미나 후에 본국에 가서도 영향력이 크리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9일간 진행될 본 세미나에서는 한국 교회의 부흥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한국 보수주의 신앙의 전통을 소개(제암리교회, 100주년 기념관, 순교자 기념관, 총신대학, 신학원 방문), 현지 목회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 실시, 세계선교의 현황 및 회교권 선교의 전략과 방법연구 등의 내용이 다뤄질 계획이다.

세미나 기간 중에 강의와 현장 답사, 교회 내의 각 부서 탐방, 구역예배 참관, 개인전도 및 제자훈련, 금요일집회, 새벽기도회, 소그룹인도법, 충현기도원에서의 산상기도회 등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세미나의 모든 비용은 교회가 부담하며, 숙소는 햇빛교회 숙박동, 식사 및 교육전행은 교회내 식당 및 국제회의실에서 하게 된다.

사용 언어는 주로 영어로 할 계획이지만 영어통역이나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의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금년 컴세미나 조직표는 다음과 같다.

준비위원장/강순용장로(교훈원위원장)
지도/김광국 목사(교훈원 지도)

교회설립 42주년 기념하며

충현기도원에서 부흥사경회 열어

강사에 임종만 목사(물금교회 당회장)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자”

교회설립 42주년을 맞으며 8월 28일(월) 밤부터 8월 31일(목) 밤까지 충현기도원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자”라는 주제로 부흥사경회가 열린다.



이번 집회는 특별히 부흥사경회로 모이는 것이 특징이다. 강사는 물금교회 당회장 임종만 목사(사진)로 ‘구원론’에 대한 집중적인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임종만 목사는 여러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기도 했는데 신학생들에게도 어렵고 딱딱한 조직신학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강의하여 큰 도움을 주는 분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번 사경회는 새벽 5시, 오전 11시, 오후 8시 총 10회에 걸쳐 구원론에 대해 강의하게 된다.

기도원에서는 교통편을 마련하여 돕고 있다. 교통편은 ① 충현교회 앞에서 기도원으로 출발(오전 9시 ~ 10시, 오후 6시 ~ 7시), ② 성남 모란시장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출발(오전 10시 10분, 오후 7시 10분), ③ 분당 전하리교회 앞에서 출발(오전 10시 20분, 오후 7시 20분 ~ 이때 춘 한신아파트 앞), ④ 기타 지역에서 가

야할 사람은 광주터미널에서 이천 또는 곤지암행 완행버스를 타고 대쌍령리에 서 하차(충현기도원 안내 간판 있음)도 보로 약 10분이면 된다. 또한 기도원에서 충현교회당으로 가는 차편은 매일 오전 6시, 오후 10시 30분경(저녁 예배 후)에 있다.

충현기도원에서 숙식을 원하는 사람은 선착순 500명까지 허락을 받을 수 있는데 식사는 기도원 식당에서 1식 1500원씩 주고 사서 먹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취사를 할 수는 없다.

자세한 사항은 충현기도원(0347-64-4425, 4472)으로 연락하면 알 수 있다.

학습 및 세례식

9월 1일(금) 학습, 세례식

9월 3일(주일) 성찬식

교회는 95년도 5차 학습 및 세례식을 오는 9월 1일(금) 오후 7시 갈릴리홀에서 갖는다. 2개월에 한번씩 실시하는 학습 및 세례식은 금년들어 4번째로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및 개종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8월 27일까지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하고 8월 31일(목) 오후 7시 교육관 307호에서 실시하는 예비교육과 문답을 받아야 한다.

분과명	분과장	지도	위 원	주요관장업무
기획	노광현		윤명식, 우기전, 서동석	기획, 총괄관리
진행	이종석	윤삼중	남선우, 이병학, 송환창, 김제명	교제, 프로그램 진행, 섭외, 영접, 기록
행정	김차생	창우천	오진국	등록, 숙식, 시설, 차량, 예산전행, 음향
홍보	이종국	조동원	조선근, 손경수	홍보, 교재편찬
봉사	김제명		김여순, 박인건, 박상준	안내, 접대, 관광
의료	이종석			의료, 환자처치, 구급약, 위생



찬양대 수련회

지난해에 전 찬양대가 함께 연합수련회를 가졌던 찬양대가 금년에는 각 찬양대별 수련회로 모였다. 6개 찬양대와 핸드벨 연주대가 수련회를 가졌다. 6월 22일 호산나찬양대를 시작으로 지난 8월 16일 임마누엘찬양대, 아멘찬양대를 끝으로 금년 여름수련회를 마쳤다. 사진은 지난 8월13일~16일까지 거제도 에스더수양관에서 가진 임마누엘찬양대 수련회 모습이다.



충현강단

시편 강해 1

당신은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시 1:1-6)

오늘부터 시편을 강해하는데 시편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문을 외울 정도로 많이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말씀의 책이요, 기도의 책이요, 찬송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송의 입술이 열리고, 말씀에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체험을 가지게 됩니다.

1. 서론

먼저 시편의 구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편을 해석하면서 보면 계속 반복해서 대구법(對句法)이라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대구법'이란 평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히브리시의 구조에 있어서 히브리시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특징입니다. 구절 두 개가 서로 대구를, 즉 평행을 이룬다 그말입니다. 대구법에는 동의적 대구법, 반의적 대구법, 종합적 대구법이 있는데 시편 1편은 반의적 대구법입니다. 또 다른 예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 홍갈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동의적 대구법을 사용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홍갈을지라도 눈 같이 희어질 것이라는 말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겠다는 말은 동의어, 즉 똑같은 뜻의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히브리시의 구조적 특색도 알지 못하고 '아, 이 첫번째 주홍갈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진다는 말은 원죄를 용서해주는 것이고, 진홍갈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기 멋대로의 해석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대구법을 아는 것이 히브리시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튼 시편 1편은 흔히 서론시, 혹은 교훈시 등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시편 전체의 현관문과도 같은 시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든 현관을 보면 그 가정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수석을 좋아하는 가정은 현관문부터 수석이 있고, 꽃을 좋아하는 집은 현관문부터 꽃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가정을 보면 현관에 성구나 성화가 걸려있습니다. 이렇게 현관문에 가보면 그 가정의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시편 전체의 현관문이 바로 제1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1편 강해만 잘 들어도 '아, 시편의 내용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 내용분해

시편 1편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1-3절까지는 복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

나님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 5절은 사탄의 길, 세상의 길, 불경하는 사람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가서 결론을 내려 줍니다.

(1) 복있는 사람

① 복있는 사람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로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좇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느냐 못받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좇아 가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누구의 길에 서 있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입장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경꾼의 입장에 서 있으면 관심이 없고 책임이 없습니다. 그저 구경하다가 그만둡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면 또 다릅니다. 주인의 입장에 서는 것과 종의 입장에 서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복있는 사람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셋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디에 앉아 있느냐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앉아 있습니까? 여기서 앉는다는 말은 새가 등지를 트는 것처럼 거기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우리의 왕국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신의 위치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쫓다 - 서다 - 앉다'에서 볼 수 있듯이 죄악은 점차적으로 형성되고, 커지고, 뿌리를 박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복있는 사람은 '악의 생각 - 악의 행동 - 악의 습관'을 멀리해야 합니다.

② 복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첫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기쁨을 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합3:17-19)과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있는 사람들은 주야로 여호와와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야로'라는 말은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 말씀을 씹으면서 내 행동은 과연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③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첫째로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

'의인', 하나님께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악인',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정한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야다'라고 했습니다.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또 이 말을 결재해주시다는 말입니다. 의인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결재를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과를 보나마나 성공입니다.



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과실을,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주령주령 맺어야 합니다. 열매없는 신앙인은 괴롭습니다.

둘째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잎사귀가 무성하다고 했습니다. 열매만 있으면 됐지 잎사귀가 무슨 상관이나구요? 물론 열매만 맺으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밖으로 봐도 잎이 청청하면 사람들이 '야, 잎이 푸르구나. 저 집은 예수 믿더니 정말 복받았어. 아들 딸도 잘 났어. 정말 성공했어' 하면서 모두들 다 기뻐하고 칭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열매뿐만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잘되고 번영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그 행사가 다 행통하리로다", 하는 일마다 만사가 행통합니다. 여러분, 직접 운전해본 분들은 더 잘 느낄 텐데 어떻습니까? 시내에 네거리가 참 많은데 거기에 파란불이 딱 켜있다가도 그곳에 도착하면 별안간 빨간불이 확 나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네거리에 전부 다 빨간 불이어서 늦었는데 큰일이다 생각하며 거기까지 가 보면 이상하게도 딱 파란불로 바뀝니다. 계속해서 쭉쭉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행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을 보면 태산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까이 와보면 파란불이 탁탁 나오는 그런 만사행통의 복을 다 받는 복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 악인의 길

4절과 5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복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는데, 여기 악하고 불의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타작 마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어서 타작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풍구나 그 밖에 키 같은 것을 가지고 바람을 일으킵니다. 바람을 일으켜서 쪽정이는 날아가게 하고 알

곡만 그 자리에 떨어지게 합니다. 알곡은 주인이 잘 모아 가지고 창고에 보관하지만 쪽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쪽정이 더미에 불을 놓아서 태워가지고 거름을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에 보면 '고개를 들지 못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아주 참 멋진 번역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다, 왜 고개를 머리를 들지 못합니까?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또 고생할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니 그만 맥이 탁 풀려서 머리조차 들 힘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서 머리조차 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악인은 머리조차 들지 못합니다.

두번째는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말씀을 원로 목사님께서 '천국과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아주 멋진 해석입니다. 의인의 회중이 바로 천국인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관계없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악인의 운명입니다.

3. 결론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의인', 하나님께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악인',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정한다'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야다'라고 했습니다. 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힘과 용기를 줍니다. 또 이 인정하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재해주시다는 말입니다. 의인이 하고 있는 일은 '그래. 그것은 됐어. 그것은 내 마음에 합한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결재를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과를 보나마나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인정받고, 결재받고, 보호받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축복을 얻는 복있는 사람의 길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가족위원회 양육부 수료식을 소개하며

매월 50-60명이 수료

윤삼중

(목사, 새가족위원회 지도)

충현교회를 등록한 새가족들은 반드시 양육부 집회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하다. 새가족 양육부에서 6개월 동안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자는 충현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천국일꾼으로 잘 성장하며, 주변에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등록한 후에 예배만 참석하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새가족들은 몇 년을 다녀도 내 교회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고 교회주변에서 손님처럼 빙빙돌다가 어느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경우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에서 어린 아이가 가장 귀중한 보배인 것처럼 새가족은 교회내에서 왕처럼 대접을 받고 관심을 받아야만 한다. 새가족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충현의 내일의 소망이요, 기존 성도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선사하는 귀염둥이다.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 웬지 서먹서먹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피해의식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새가족의 심리일 것이다. 더군다나 충현교회는 대형교회이며 사람들도 많고 건물이 웅장하다 보니 웬지 위압감을 느끼기도 하며, 과연 나에게 이렇게 큰 교회가 적합할까? 고민도 했다가 때로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소외감을 가지기 쉽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서는 새가족만을 특별히 섬기고 그의 고민과 갈등을 해결해주고 다정한 친구가 되어 일대일로 만나 신앙상담을 해주며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새가족위원회를 만들었다. 양육위원은 새가족들의 친구요, 때로는 새가족들에게 다정하고 따뜻한 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특히 새가족 양육부 집회는 새가족들의 신앙성장, 교회생활의 안내를 돕고, 신앙생활의 고민과 갈등을 해결해주는 영적인 작은 천국이다. 양

육부 집회에 참석하면 신앙의 고민과 갈등이 해결되며 신앙생활의 기쁨이 잡히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픈 부위를 치유 받을 수 있는 사랑의 샘터요, 은혜의 동산이요, 교제의 장이다. 양육부 집회에 참석하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한 귀한 친구를 사귄 수 있으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큰 원동력이 된다.

현재 양육부 집회에는 매주일 새가족들이 240여명이 참석하고 있으며, 새가족 위원장 오정현 장로, 지도 윤삼중 목사, 부지도 한영준 전도사를 비롯하여 100명의 양육위원들이 신앙 상담과 반별 모임을 인도하며 섬기고 있다.

양육부 집회에 참석하여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은 후에 수료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각종 시상식이 있다. 6개월동안 한번도 결석하지 않은 자에게는 개근상, 타에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모범상,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자에게는 전도상을 수여한다. 양육부 수료식은 매달 마지막 주일에 실시하며, 수료식 인원은 50-60여명이 된다. 수료식과 더불어 학습을 받기 원하는 자는 학습신청서를 제출하고 문답을 마친 후에 학습예식을 거쳐 충현교회 학습교인이 되는 특혜도 주어진다. 새가족 양육부 집회에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대상자로 선정되어 수료식을 거행하며, 그 후에 연령별로 분리되어 각 교회 학교에 편성되어 평생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충현교회에 등록한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양육부 집회는 매주일 10시 30분에 갈릴리 홀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부디 양육부 집회에 참여하셔서 참된 신앙의 안식과 기쁨을 누리시고, 귀감이 되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인 충현의 천국을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우리는 지금 / 청년2부 ◆

「종달새 소리를 듣는 시인의 섬세함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만 있다면……」

30대 여러분, 청년2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청년 2부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말씀 중심의 삶 속에서 기쁨을 체험하는 30대를 위한 교회학교이다.

30대는 20대에서 체득한 막연한 지식을 경험을 통하여 실제 삶의 환경 속에서 발전시키고 심화시켜 자기의 영역을 구축할 시기이며, 이 시기를 잘 보내지 않으면 방향정립과 완성세의 도달 가능성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정된 위치에 오르기 위하여 뒤도 돌아볼 겨를없이 뛰어야 함을 강요받는 세대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결혼, 분가, 자녀출산, 양육을 통하여 독립적인 삶의 책임을 자각하는 시기이며,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방향이 무척다고 허용되는 시기는 아닌 세대가 바로 30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30대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생활 가운데 내적인 삶과 외적인 삶의 조화를 통하여 중심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본다.

30대의 교회학교 청년2부는 악인의 행동과 오만을 세상을 통하여 바라보고 의인의 고난이 끝이 없음을 경험한 우리 30대에 실존하거나 미끄러지기 쉬운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2부는 1995년에 '사슴이 사슴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매주일 오후 12시 30분에 교육관 414호에서 모여 우리 교회 협동목사이시며 총회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김정우 목사의 '시편강해'를 듣고 있다.

김정우 목사의 유머러스하고 은유적인 강해는 시편의 기자들을 만난 것처럼 우리를 시편 속으로 인도하며 우리 30대가 생활 속에서 체험한 유사한 경험의 세계를 발견함으로써 주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깨닫게 된다.

청년2부의 대상은 만 30세에서 39세까지로 하며, 이는 전도회로 볼 때 요한 전도회와 마리아전도회에 해당된다. 그러다보니 아직 어린 자녀를 데리고 함께 출석할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하여 어린 자

녀와 함께 출석하는 회원을 위하여는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반을 운영함으로써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혼인 남녀들만의 반인 살롱반을 운영하여 목사의 강의 후에 별도로 모여 그룹성경공부와 교제를 통하여 친교를 나누며, 월 1회 목사님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하여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고 있다.

목사의 강해 후에 있게되는 반별 친교는 훌륭한 교사님들의 지도아래 10명 내외의 30대가 그날 배운 성경과 일상생활의 경험을 대입시켜 보거나 토의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교제 속에서 실제적인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또한 시기적절하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시간을 마련하여 폭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 금년 여름수련회도 '인애의 삶'이란 주제로 8월 21일(월)과 22일(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갈릴리홀에서 개최하게 된다.

한국 교인의 신앙이 개인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있음은 하나님께 대한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는 그리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

거룩한 공동체는 상식을 초월한 이웃에 대한 충성에서만 가능하며,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인애의 삶'이라고 한다. '뜻'과 같이 평범한 이방 여인을 통하여 여인의 평범하기 그지없는 충성의 삶을 통하여 한민족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는 우리의 평범한 행위 하나가 구속사적 의미까지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여름의 막바지에 청년2부 여름수련회에 평범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가는 소망을 가진 충현의 모든 기혼, 미혼의 30대 성도 여러분과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을 초대하고 싶다.

「종달새 소리를 듣는 시인의 섬세함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만 있다면……」

양육훈련을 받으며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나만의 신앙을 고집하지 않게 되었으며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하는 것이
어느 곳인지 알게 하셨다

한 연숙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이 날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이다.

찬양대원, 교사, 양육부위원 등 각 부서에서 모인 모임이 바로 양육훈련부이다. 작년 봄에 시작한 이 훈련은 이제 3학기를 마치고 방학중이다. 이 방학이 뜻깊은 우리들은 목사님을 모시고 한 차례의 야와 모임도 가졌다.

우리는 오직 한가지 같은 목표를 가지고 훈련에 임하고 있다. '우리가 양육되어지듯 다른 성도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되어지길'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나누게 하셨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다른 사람들처럼 안일하고 누구를 살릴 겨를이 없던 신앙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를 양육시키시며 예수님이 사신으로 훈련되길 원하셨다.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나만의 신앙을 고집하지 않게 되었으며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하는 것이 어느 곳인지 알게 되었다. 내 주변에도 보면 구원의 기쁨만 갖고 그 안에서 멈추고 있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된다. 교회의 회원인 것으로 만족하며 교회의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가 늘 바르게 위한 신앙생활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 훈련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도 제자로서 소

명받았으며 다른 사람도 양육되어지기를 원하게 되었다.

우리의 훈련은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서로 도와하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른 생강공부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철저한 준비없이 이 수업은 결코 원활하게 왔으며 모두 다 무척 열심이다. 한 주간의 기도를 나누고 그 기도제목을 위해 기도하며, 또 양육되어지길 원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는 집중적인 기도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작은 모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이루어져 서로 서로 돌아보는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이 훈련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보다 많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 이후의 삶에 더욱 풍성해지고 아름답게 양육되어지기를 바란다.

고등부

학부모 기도회 시작

고등부는 8월 23일(수) 오전 10시 베다니홀에서 학부모 기도회를 갖는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게 되는 학부모 기도회는 수험생 부모 및 고등부 학생 학부모 또는 중등부 학생 학부모도 참석할 수 있다. 이 시간에는 기도회와 아울러 청소년 신앙교육 지도 등을 한다.

95년도 제2학기

성경연구원 원서 접수

8월 27일(주일), 개강예배

성경연구원은 제2학기 성경연구원 각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접수 마감은 8월 27일까지인데 총 6개 부문에 19반을 개설하여 놓고 있다. 성경연구원은 타교회 교인도 수강할 수 있다.

개강예배는 8월 27일(주일), 오후 3시 15분 갈릴리홀에서 드리게 된다.

교역자 제2차 성지연수

8월 21일(월) 출국

교역자 성지연수 제2차 팀이 8월 21일(월) 출국하여 9월 2일(토) 귀국예정으로 실시된다. 2차는 김찬곤 목사의 24명

으로 12박 13일의 일정으로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등의 성지연수를 실시한다. 1차는 6월 26일 ~ 7월 8일까지 다녀왔다.

에바다부

사랑의 수화교실

에바다부는 수화교실을 개설하여 수화를 가르치고 있다.

· 화요일반 / 9월 5일 ~ 11월 21일, 오후 7시 30분 ~ 9시

· 주일반 / 9월 3일 ~ 12월 10일, 오후 3시 ~ 4시 30분

장소는 교육관 109호 에바다부실이 다.

교회설립42주년 기념

축하 찬양예배

교회설립42주년을 맞으며 9월 3일 저녁예배는 축하찬양예배로 드리게 된다. 특별찬양은 가브리엘찬양대가 비발디 작곡의 '영광' (Gloria)를 연주 찬양하게 된다.

95년도 상반기 장학생은 95년도 제1학기 성적표를 8월 27일까지 교육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동산을 이용하는 성도들에게

충현동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동산에 들를 때마다 동산이 달라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전보다 훨씬 깨끗하고 단장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뉘저 모를 애착과 포근함을 함께 느끼게 된다. 일반 사설공원 묘지와는 아주 다른 안정감과 쾌적함이 있는 곳이 되었다. 이는 동산관리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동산관리부에서는 보다 좋은 충현동산을 위해 추석을 앞두고 몇가지 부탁의 말을 하고 있다.

1. 분묘 잡초제거 및 주변미화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호미, 삽은 관리사무실에 준비되어 있고 잔디

도 필요한 분에게는 제공해 드립니다) * 추석 전 동산 전체 벌초는 동산관리부에서 해드립니다.

2. 하수로 보수 및 기타 붕괴된 축대 보수 등 동산공원화를 위해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관리비에 대해 미납된 유족께서는 추석절 전후에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처 ① 사무국 동산담당, ② 충현동산 관리원)

3. 기탁 전의 사항이나 협조사항에 대하여는 관리부장(483-7536)에게 연락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제4회 국제 컨세미나 기도제목

1. 모든 강사와 책임을 맡은 일꾼들이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2. 회교 지도자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전파된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회교권 지역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3. 초청된 이집트(28명), 수단(4명), 터키(5명) 목회자들이 은혜와 성령충만으로 하나님의 큰 비전을 자제케 하옵시고, 참석한 목회자들이 회교권 복음화를 위해 순교의 피를 흘려 선교의 열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4. 컨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회교권 선교의 많은 장애물 앞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회교권 복음화에 큰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5. 금번 컨세미나를 통하여 충현의 가족들에게 세계선교를 위한 뜨거운 기도와 선교의 불을 붙여 주옵시고, 좋은 선교사들을 배출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6. 컨세미나 기간 동안에 좋은 날씨를 주시고,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불타는 소명의식을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7. 회교권 지역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 주옵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 주옵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 8/30(수)까지 '95 여름휴가
· 신성종 목사 : 능력으로 날마다 붙들어주시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2.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3. 초청전도집회와 예수사랑 큰잔치 때의 결신자들이 등록자가 되게 하시고 등록자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인도자와 양육위원들과 교구, 지역, 구역에서 잘 양육하게 축복해 주소서.
4.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5.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세계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금년에도 풍년을 허락하소서.
6.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소서.
7. 충현의 교회학교가 여름행사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시며 모든 학생들과 성도들이 은혜충만, 성령충만, 말씀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8. 삼풍백화점 붕괴로 슬픔을 당한 가정과 폭우로 수해를 당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함께 나누게 하시며, 다시는 이와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책임을 감당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9. 교회설립 42주년 축하찬양예배(주관-가브리엘찬양대)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시

내일이

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과 조목이 입맞추는 팔월
여러 색깔의 인간이
그 넉넉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숨소리를 느낀다

세상을 뒤에 두고 삶을 접어둔 채
후덜덜한 마지막 여정을 먹으며
침묵을 깨고 온 몸으로 풀어낸다

앞모습보다 뒷모습의 아름다움
탈출에 성공한 당신의 백성
내일이 있기에 간만에 화려하심을 바라본다

그러나 여름마귀는 뜨거운 눈화살로 쏘아보고
항상 믿음의 심장을 겨냥하며
하나님과 등돌리도록 유혹은 유혹으로 펼친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파구 뛰놀며
생활속에 천국을 이루어자 주께야래
입술마다 웃음함박 혀에는 찬양에 골송이어라

육신의 가시가 땅으로 솟아 나올 때
아름의 고통은 잠재잠간
투명한 평화는 한회로 찾아온다

추하고 대문은 활개를 때워
여름용광로로 강하게 단련 후
얼굴은 변하고 정원으로 빛나며 웃네

세상을 속이고 속으며 사는 물쌍함
하늘 아래 참 길이 없고
오직 십자가로 열어놓은 참 길 하나이어라

김윤섭
(집사, 장년부)

(장년1부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